



죽비와 목탁

인연테 편집부국장
mian1@hammail.net



미디어 환경 변화와 불교

오늘날 불교 언론의 역사는 반세기로 꼽는다. 1961년 1월 1일자로 발간된 '대한불교(지금의 불교신문)'를 출발점으로 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정기적인 간기를 지키는 신문 형태의 매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일제 강점기 때 발간과 폐간을 거듭한 여러 잡지들을 친다면 불교 언론의 역사가 짧다고 할 수는 없다.

인터넷 매체도 상당수 활동하고 있다.

최근 '천지일보'가 창간됐다. 또 '범종교종합전문지'를 표방하는 '세계종교신문'도 창간됐다. 천지일보의 경우 중도 화합을 모토로 내세운 종합일간지이지만 종교관련 뉴스에도 적극적이다. 발행인은 창간사를 통해 "사회 종교 종합일간지 천지일보의 창간을 내외로 선포한다"고 했다. 그만큼 이 신문은 종교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공간 이후에서 정국면까지, 그리고 각종 단의 잇따른 창종과 사회언론 환경의 변화, 인터넷과 통신의 발달 등 숨겨진 시간들을 거쳐 오면서 불교 언론은 어땠는가? 아쉽지만, 누가 일일이 자료를 챙겨 정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을 한 일이 없다. 이 분야에 대한 학문적 접근도 그다지 없다. 짧게는 50년에서 길게는 100년을 짚을 수 있는 불교 언론의 역사가 체계적인 연구 환경이나 성과도 없이 시대의 흐름에 내맡겨진 셈이다.

불교계 내부의 단체나 법인에 의해 발행되어 온 불교전문지 시대는 이제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는 셈이다. 사회나 문화 뉴스의 한 부분으로 종교를 다뤄오던 종합일간지나 지역 신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지만, 종교계 내부의 전문지들은 지금의 변화를 주시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기존의 불교 언론에 뿐 아니라 불교계 전체에도 새로운 '논프기'를 요구할 것이다. 언론이 갖는 '감시기능'의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내부'로 치부했던 불교 전문지의 시각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접근해 오는 '외부의 시각'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불교 언론은 또한 번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간의 불교 언론은 뉴스 전달 기능과 전방의 기능을 합친 '포교지' 내지는 '불교문화 교양지' 개념 속에 자리했다. 월간 잡지와 주간신문 등이 대세를 이루다가 2000년 이후 인터넷으로 기반을 확장했고 지금은

태고종 선거 다시 원점

서울지법, 태고종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수용

파행으로 치닫던 제24대 태고종 총무원장 선거가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다.

서울지방법원이 9월 4일 대은, 도산, 지허 스님 등이 신청한 태고종 중앙선관위 집행 및 선거규칙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수용했다.

이에 태고종은 총무원장 선거를 다시 치루기로 결정하고, 7일 총무원장 선거가 예정된 총회를 예정대로 개최하되 후보 사퇴를 받아 총무원장 권한대행 재선출, 중앙선관위 재구성, 선거일정 재공고 등 종단 수습·화합책을 마련키로 했다.

서울지법 민사50부는 이번 가처분 수용 사유로 "선거규칙이 해당

공고일 이후 제정돼 후보등록이 마감된 후 공포됐으므로 피선거권 침해와 선거 공정성 훼손이 우려되며 총무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사50부는 이어 그동안 선관위원장 및 자율 스님 등이 밝힌 '부적격 후보자 난립 방지'의 복수추천 금지규칙에 대해서도 "후보자 추천권 행사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확정 지지의사가 아니라, 선거과정에서의 검증은 전제로 최소한의 적격성을 선별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판결했다. 또 "그럼에도 중앙선관위 등이 문제가 있는 선거규칙으로 선거를 시행함을 밝혀 종단 내에 혼란이

예상됨으로 가처분으로 이를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당초 선관위의 '총회의원 중 복추천 금지조항'으로 총무원장 후보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대은, 도산, 지허 스님은 선거 공고 이후 규칙을 제정 한 점과 선관위원장을 총무원장 대행인 인공 스님(단일 총무원장 금지규칙에 대해서도 "후보자 추천권 행사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확정 지지의사가 아니라, 선거과정에서의 검증은 전제로 최소한의 적격성을 선별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판결했다. 또 "그럼에도 중앙선관위 등이 문제가 있는 선거규칙으로 선거를 시행함을 밝혀 종단 내에 혼란이

예상됨으로 가처분으로 이를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중앙종회 4개 특위 '출발' 기부체납 중단 환수특위 등 임원단 꾸러

8월 10일 열린 조계종 중앙종회 제181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4개의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 4개 특위는 △국가 및 지자체 등에 기부체납한 사찰의 종단 환수를 위한 특별위원회 △법원 재심사를 위한 제도개혁 특별조사위원회 △선거법 개정특별위원회 △승탑기산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다.

'법원 재심사를 위한 제도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재심사특위)'는 8월 31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법광 스님, 간사에 재현 스님을 선출했다. 재심사특위는 불합리한 사유로 인한 부당한 징계를 받은 스님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울장정신 실천 등 멸빈을 포함한 징계제도의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2차 회의는 9월 18일 예정됐다.

선거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선거법특위)도 같은 날인 31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4개 특위를 위원장으로, 진화 스님을 간사에 각각 선출했다.

선거법특위는 지난 총회에서 논의된 선거법 개정안과 설문조사 결과 등 자료를 검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향후 선거법 개정에 반영키로 했다. 2차 회의는 9월 22일이다.

또 승탑기산문제해결을위한특별위원회(이하 승탑특위)도 9월 1일 위원장에 보인 스님, 간사에 승언 스님을 호선했다.

승탑특위는 지난 중앙총회에 상정된 승려법 개정안 계류 문제와 예비승 수행기간 승탑기산시 종현 위배 여부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9월 10일 2차 회의를 열고 선원, 강원, 율원 대표 등이 참석하는 대중공청회 개최 등을 논의키로 했다.

비회기 동안의 특위 활동으로 조계종의 묵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미얀마 아웅자부 초교 준공

지관 스님 "양국 불교협력의 상징이자 출발점"

2008년 불 사이클론 나르기스로 폐허가 된 미얀마의 아웅자부 초등학교가 조계종의 구호성공과 불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새롭게 재탄생했다.

아웅자부 초등학교 건립에 구호활동과 교육사업 지원에 앞장서온 조계종은 지난 8월 29일 미얀마 양곤 인근에 위치한 아웅자부 사원에서 아웅자부 초등학교 준공식을 거행했다. 이에 따라 미얀마 어린이 200여 명이 새롭게 배움의 기회를 얻게 됐다.



8월 29일 미얀마 양곤에서 열린 아웅자부 초교 준공식.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세영 스님이 대독한 축사에서 "오늘 우리가 세운 학교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이번 준공식은 양국 불교계 협력의 중요한 상징이자 출발점이 될 것"이라

고 밝혔다.

조계종과 함께 학교 건설 등 교육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시타구불교협회 대표 나네이사라 스님은 "이곳 학생들이 한국과 미얀마 불자들의 바램대로 미얀마의 미래를 이끄는 이들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박선주 기자

종산 스님 등 보시 손길 이어져

아름다운동행에

조계종과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이 추진하는 저소득 실직가정, 군포교 지원을 위한 자비나눔운동에 스님들과 신도 및 단체들의 많은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원로회의 의장 종산 스님은 9월 4일 성금 1000만원을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이번 기금은 종산 스님이 그동안 조금씩 모아 둔 용돈으로 소외계층과 경제여파로 살림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전달됐다. 박선주 기자

같은 날 오전, 아름다운동행은 의약품 전달을 위해 호국원광사를 찾았다. 아름다운동행에 기부된 비타민은 서울시 약사회 산하 천사의약품지원센터가 한국외어어에서 지원받은 의약품으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노인장병들에게 전달됐다.

한편, 아름다운동행은 "2009년 9월 2일 기준 총 모금액 8억3712만 7990원은 실직가정 다문화가정 치료비 및 생계비 지원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외계층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박선주 기자

현대불교로 최상의 공양 法 보시를...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바르게 설하고 설명하고 고찰하며 바른 법을 온전히 지키는 법공양(法供養)이 가장 수승한 공양이라 하셨습니다. 한 정(恒)의 '현대불교'를 이웃과 어려운 이들에게 법보시하는 것은 다함께 깨달은 세상을 만드는 형상 없는 불사(佛事)가 될 것입니다.

- ▶ 법보시 대상 군법당, 병원, 교도소, 각급 학교 및 공공 도서관, 관공서
- ▶ 법보시 후원 안내 법보시는 1구좌 1000원 이상 월 구독료는 5000원
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문의 (02)2004-8200

한국 간화선의 특징과 전통

간화선 세미나 11일

한국 간화선 역사성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학술 연찬회가 열린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현종)는 9월 11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10차 조계종 간화선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 간화선의 특징과 간화선 전통의 형성'을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

는 김방룡 총남대 교수가 '한국 간화선 선포의 성립과 특징'을 김종인 부산대 연구교수가 '<선문촬요>와 한국 간화선 전통의 형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논평자로는 한형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와 이병욱 고려대 외래강사, 김호귀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변희욱 서울대 외래강사가 사회자로는 서재영 불학연구소 연구원이 참여한다. 조동섭 기자

김태영·주호영 불자 국방부·특임장관 임명



이명박 대통령이 단행한 '9·3 개각'에서 불자 2명이 내정됐다. 국군포교에 앞장서온 국군불교총신도회 회장 김태영 합참의장(사진 왼쪽)이 국방부 장관에 발탁된 것을 비롯해, 국회불자모임인 정각회 소속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대구 수성출 - 오른쪽)이 이명박 정부 들어 신설된 특임장관에 내정됐다. 박선주 기자

서울경승지단 경찰포교 재시동

경승단 활동의 침체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서울지방경찰청 서울경승지단(지단장 세민)이 경찰포교 활성화에 재시동을 걸었다.

서울경승지단은 8월 31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경승활성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서울 31개 경승실장을 중심으로 '경승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안전 논의에 앞서 경승단 경찰포교활동 역량 미

약, 조직성숙도 활동 연계성, 경승활동 모델 부재에 대한 현행 경승활동의 문제점과 한계 등을 공유했다. 이어 △서울 경승지단 운영위원회 구성 △공공기관모임 및 연합행사 추진 △법회 활성화 등을 위한 제안 등의 안건 논의를 열었다.

경승운영위원회는 상시적인 경승활동에 대한 주요 협의 및 협의기구로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상연 기자

불교의식(범음·범패) 단기 속성 수련생 모집 (제11기 교육)

사단법인 전통불교영상화에서는 실제로 상용하고 있는 불교의식(범음·범패)을 여법하게 배울 수 있는 제11기 학인스님을 모집합니다. 범종단적으로 추진하는 이번 교육은 단기간 집중적 교육(단기속성 7일간)으로 이론, 실기, 현장학습을 같이하여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제11차 불교의식교육에 수행정진과 포교에 진력하시는 스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교육 일시 : 불기 2553년 9월 20일(음 8월 2일) 일요일 - 9월 26일(음 8월 8일) 토요일(7일간)
- 교육 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3동 269-4(밤실마을) 울곡사 (062-263-4575)
- 교육 대상 : 출가사문(비구, 비구니)
- 제출 서류 : 수강신청서(본 회에서 배부) / 반명함판 사진 2장 / 승려증 사본
- 교육동참비 : 일십오만원(교육교재, 숙식, 제반비용 포함)
- 접수 기간 : 불기 2553년 9월 18일까지
- 접 수 : 총무스님 010-3639-2946
교무스님 010-2633-7633 재무스님 011-9605-5155
- 생활습의는 대중처소와 같이합니다. (가사, 장삼, 목탁, 요령, 필기구 지참요망)

■ 교육 과 목	
안채비	(1) 의식편(상단, 중단, 하단의식 불공 등) (2) 제의식편(시련, 대령, 관육, 시식 등)
거채비	(1) 사물 다루는법 (2) 민바라 (3) 천수바라 (4) 다계(나비춤)

※ 실제 법회에서 상용되고 있는 의식을 이론, 실기, 현장실습 등의 방법으로 교육하므로 초심자도 쉽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 수료식 후 수료증과 함께 본회 준회원의 자격이 주어지며, 우수한 스님들은 정회원에 가입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실습에 동참 할 수 있습니다.